

# 사이타마현에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자전거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5분 20초에 1건  
자전거사고가 발생중

초등학교 남자(11살)이 밤에, 자전거로 귀가도중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걷고있던 여성(62세)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여성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배상액은 9,521 만엔이었습니다. (고베지방법재판소 판결)

이러한 고액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 자전거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배상액은 비싸지고 있습니다.

	인신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7년	7,562	32	7,589
2016년	7,895	33	7,933
증감수	- 333	- 1	- 344
증감율	- 4.2%	- 3.0%	- 4.3%

사이타마현 자전거사고의 발생수는,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사고 책임은 무겁고, 배상액도 커져서 미성년이라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중에, 사이타마현에서는 자전거사고에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달라고「사이타마현 자전거 안전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고쳐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자전거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손해보험」이란 자전거가 원인으로 일어나 사고로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를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

보험료는 월액 260 엔 정도부터 다양합니다. 많은 보험회사호 부터 보험료, 보상내용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든지 FICEC 에 문의해주세요.

	보험료(년액)	사망보상	휴유장애 보상	입원보험금 일액	수술보험금
A 플랜	2,900 엔	300 만엔	-	6,000 엔	-
B 플랜	2,290 엔	300 만엔	300 만엔	3,000 엔	1.5 만엔 or 3 만엔
C 플랜	1,960 엔	100 만엔	100 만엔	1,500 엔	-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가입합니다

## 새롭게 편리해진 후지미시 중앙도서관

후지미시 중앙도서관이 1 년만에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용자들로 부터의 요망사항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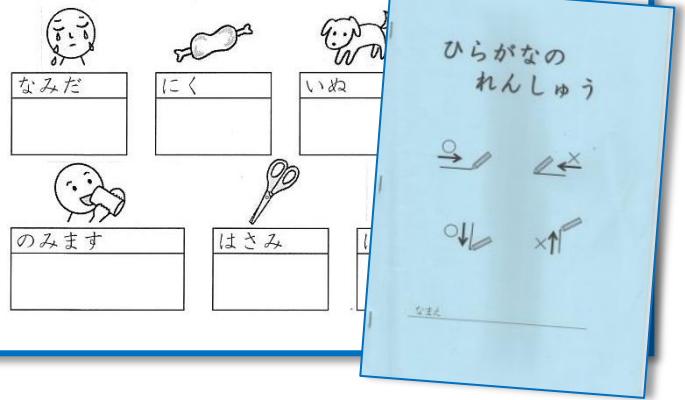
책을 빌릴뿐만 아니라 아기들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화실, 비디오영화관, 뮤직코너 외에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리가 가득한 새로운 도서관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어린이용 회화나 어른용 영화감상회등도 있으니 꼭 둘러보세요.



## 일본어공부 스타트 「히라가나의 연습」

FICEC 일본어교실에서는 매주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자유참가로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히라가나 연습」이라는 공부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많이 들어간 외우기 쉬운 텍스트 입니다. 1 권 100 엔입니다. 교실에 와서 즐겁게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 한국요리교실



화제의 한국요리를 자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면 페이스 북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소 ; 「피이자☆후지미」  
후지미노역 하가시구치

비용 ; 3000 엔(재료비포함)

소지품 ; 에프론, 삼각두건

강사 ; 안 은주

메뉴 ; 치즈닭갈비, 미역국  
감자전

## 일본어를 공부중인 여러분에게 선배로부터의 조언①

### ◆필리핀에서 온 N 씨의 경우◆

일때문에 일본에 왔을 때는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고 그리고 「애들을 지키는 것은 나」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야간의 일본어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엄마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어가 서투러도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학교의 PT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엄마친구들이 생기면 모두가 학교에서 오는 연락장을 읽어주는등 도와주었습니다.

문자를 기억하기 위하여 매일 공부했습니다. 「일본에서 쪽살아 가겠다는」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본어를 알게되면서 「일본사회를 알고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가 생겨서 일도 재미있어 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능숙해지자 자신의 일본어레벨을 알고 싶어져서 일본어로 운전면허에 도전해서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